

# 텔레비전드라마의 국민국가에 대한 전근대적 ‘판타지’

- <더킹 투하츠>를 중심으로 -

이승현\*

## <차례>

1. 들어가며
2. 멜로드라마적 판타지를 위한 대체역사의 활용
3. ‘왕실’ 판타지와 ‘분단’ 리얼리티의 모순적 절합
4. 텔레비전드라마의 전근대적 판타지 -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이 글은 텔레비전드라마 <더킹 투하츠>를 대체역사물의 관점에서 읽어냄으로써 작품에 숨겨진 현실과 판타지의 문제를 다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체역사는 역사의 자의성을 전경화시킴으로써 현실을 전복시키는 장르이다. 따라서 대체역사를 통해 <더킹 투하츠>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판타지의 문제를 다룬다면,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드러나는 현실 인식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대중 장르로서 텔레비전드라마인 <더킹 투하츠>는 다소 문제적이다. 가장 먼저 새로운 멜로드라마의 구성을 위해 대체역사를 활용하고 있다. 조선 왕실의 계속된 독립운동 참여가 있었다는 설정과 함께, 남한 왕족과 북한 여군 장교의 멜로드라마를 서사의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애정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다른 멜로드라마와는 구별된다. 또한 이러한 서사는 ‘왕실’ 판타지와 ‘분단’ 리얼리티가 모순적으로 절합되어 구성된다. 남한 사회의 왕실은 대체역사로서 판타지의 결과물이라면, 남북한의 분단 문제는 실제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비현실적인 관계로 현실이 왜곡된다는 점에서 현실의 문제를 전복적으로 다루지는 못한다.

텔레비전드라마 <더킹 투하츠>는 대체역사를 활용하여 우리의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

\* 경북대학교 강사.

나 판타지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퇴색되었다. 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실을 전복하는 방식으로 판타지가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킹 투하츠>는 판타지를 통해 오히려 현실을 은폐하고 강한 국가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전근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제어 : 텔레비전드라마, <더킹 투하츠>, 대체역사, 판타지, 멜로드라마

## 1. 들어가며

‘판타지(fantasy)’는 이야기가 가지는 현실과의 거리를 전제한다.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공통적 인식에 한정했을 때, 작가들은 판타지를 통해 현실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한다.<sup>1)</sup> 이러한 판타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 서사와 만나고 있는데, 영상 서사가 추구하는 시각적 자극과 판타지물이 가지는 낯섦이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텔레비전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시간 이동, 외계 생명체, 초능력, 초자연적 현상 등등은 모두 판타지의 장점을 텔레비전으로 옮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텔레비전드라마 중에 그 형식적 특징에서도 확연히 ‘현실과 다른 측면을 가지기에, 쉽게 판타지라는 범주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 특히 등장하는 인물이 괴물, 귀신, 도깨비, 외계인 등과 같이 인간과 다른 기이한 존재이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 혹은, 우리의 경험 세계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 및 배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그렇다. 이에 비해 역사적 사건 혹은 그 배경의 사실성에 대한 문제를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하는 경우, 그 서사를 판타지 개념과 연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사 또한 ‘현실과는 다른 내용을 전제하고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대체역사(alternative history)는 일종의 ‘사실과 판타지의 융합’으로, 만약

1) 츠베탕 토도로프, 최애영 옮김, 『환상서설』, 일월서각, 2013, 70면 참조.

역사적인 사건이 달랐다면 현재가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가정하여 가상의 역사를 창조해내는 서사유형이다.<sup>2)</sup> 이처럼 불가능한 과거를 바꾸려는 서사 전략은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타개해 보고자 하는 욕망<sup>3)</sup>에서 비롯되기에, 현실을 전복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판타지는 대체역사와 잘 어울리는 방법이라고 하겠다.<sup>4)</sup> 따라서 대체역사라는 역사에 대한 판타지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보여주고자 하는 현실의 가능성을 통해 가상적 이면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체역사를 활용한 텔레비전드라마는 시청자로 하여금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게 할 수도 있으며, 그들에게 현실에 대한 위안을 줄 수도 있다.<sup>5)</sup> 대체역사를 활용한 텔레비전드라마의 이러한 효과는 현실의 결핍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대체역사물의 하나인 <더킹 투하츠><sup>6)</sup>를 통해 텔레비전드라마에서 드러나는 현실 인식의 한 양상과 판타지 활용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킹 투하츠>는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왕실을 중심으로 독립 운동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해방 이후 자연스럽게 국왕을 중심으로 입헌군주제의 형태로 독립하였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과 다른 “입헌군주제라는 가상의 배경”<sup>7)</sup>을 두고 이야기가 진행되기에, <더킹 투하츠>는 대체역사라는 판타지를 기반으로 성립된다. 이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역사에 대한 이러한 판타지는 국가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에

2) 류철균 서성은, 「영상 서사에 나타난 대체역사 주제 연구」, 『어문학』 제99집, 한국어문학회, 2008, 422면 참조.

3) 박명진, 「텔레비전 드라마 <나인>에 나타난 시간 여행의 의미 연구」, 『어문론집』 제59집, 중앙어문학회, 2014, 280면.

4) 이숙, 「한국 대체역사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39면.

5) 이와 관련하여 나병철은 환상과 현실의 관계를 ‘이데올로기적 환상-현실’과 ‘미학적 환상-현실’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나병철의 『환상과 리얼리티』(문예출판사, 2010, 30-39면)를 참조할 것.

6) 홍진아 극본, 이재규 연출, <더킹 투하츠>, MBC, 총 20회, 2012.3.21.~2012.5.24

7) 강석봉, 「'더킹 투하츠' 결말까지 개념으로 채웠다」, 『스포츠경향』, 2012.5.25.

대한 욕망으로 이어진다. 세계적으로 국왕이라는 존재와 입헌군주제라는 제도는, 근대 식민지시기 식민지를 운영했던 국가나 당시 독립을 유지했던 국가, 예를 들면, 영국, 일본, 태국 등과 같은 나라에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판타지는 식민지를 경영했거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했던 국가에 대한 일종의 동경으로 읽을 수 있다. <더킹 투하츠>는 강력한 국가적 이미지와 함께,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를 통해 국가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문제를 같이 그려낸다.

대체역사로서 이러한 판타지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현실 인식을 시청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형식적 특징을 통해 판타지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드라마의 경우와는 달리, 대체역사의 경우 시청자가 자칫 허구적인 가상의 서사를 실제로 인지하고 이를 현실의 문제와 연결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왕권과 입헌군주제라는 대체역사를 활용한 텔레비전드라마가 2000년대 이후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제한된 편수만 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더킹 투하츠>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체역사를 활용한 작품을 살펴보면, 당시 연재 중이던 동명의 만화<sup>8)</sup>를 기반으로 궁중 로맨스를 다룬 <궁><sup>9)</sup>과 그 후속작으로 제작된 <궁S><sup>10)</sup>, 두 작품과 유사하게 멜로드라마적 성격이 강했던 <마이 프린세스>,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더킹 투하츠> 정도가 전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궁>과 <궁S> 그리고 <마이 프린세스>를 제외하고 <더킹 투하츠>라는 하나의 드라마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앞선 세 드라마가 왕궁과 왕족이라는 가상의 역사적 설정을 신데렐라 신드롬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면, <더킹 투하츠>는 국가권력과 자본

8) 원작 만화는 박소희 작의 <궁>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아직 연재 중이었다. 평범한 여학생이 황태자와 정략결혼을 한다는 설정으로부터 출발한 판타지 멜로물이다.

9) 인은아 극본, 황인뢰 연출, <궁>, MBC, 총24회, 2006.1.11.~2006.3.30

10) 이재수 도영명 극본, 황인뢰·김수영 연출, <궁S>, MBC, 총20회, 2007.1.10.~2007.3.15.

권력의 대결뿐만 아니라 분단 상황과 같이 공적이며 역사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더킹 투하츠> 역시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남북한의 분단 문제와 자본권력의 비리를 영웅적 지도자와 강한 국가의 이미지<sup>11)</sup>를 통해 해결해간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따라서 <더킹 투하츠>에 대한 분석은 텔레비전드라마를 통해 드러나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의 단면과 이를 표현하고 극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된 판타지에 대한 의의를 확인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2. 멜로드라마적 판타지를 위한 대체역사의 활용

<더킹 투하츠>는 남녀 주인공의 애정 문제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시키으로써 멜로드라마적 구성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멜로드라마의 이야기 전개를 고려한다면,<sup>12)</sup> 사랑하는 남녀 주인공이 사랑을 얻거나 이별하는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간다. 즉, 남녀 주인공을 포함한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이어 서로의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 외부로부터 위기가 발생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하게 된다. 그러나 <더킹 투하츠>에서 남녀 주인공이 보여주는 사랑은 다른 멜로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남녀의 사랑에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개인이나 가문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나타난다면, <더킹 투하츠>에서 주인공들의

11) 영웅적 지도자와 강한 국가의 이미지는 계몽의 관점에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족의 발전을 내세웠던 군사정권 시기에 박정희는 근대화라는 당대의 가치에 어울리는 역사적 영웅들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충성한 국민(민족)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연식의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7)을 참조할 것.

12) 순수 멜로드라마의 전형에 관해서는 벤 싱어의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이위정 옮김, 문학동네, 2001, 63-65면)을 참조할 것.

사랑은 국가와 국제 사회라는 공적 영역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 킹 투하츠>에서 이재하는 왕인 재강에 의해 남북단일팀으로 이루어진 세계장교대회(WOC)에 참여할 준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만난 김항아와 우여곡절 끝에 서로 사랑을 확인하게 되지만, 남북의 평화를 막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클럽M의 김봉구에 의해 계속 방해 받는다. 하지만 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단순히 경제 권력의 견제나 국제적 분쟁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둘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나타나는데, 이들의 결혼은 계획 단계이고 김항아가 후보자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

기자 오늘 아침, 왕제비 후보로 북한 특수부대원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충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왕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민 1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저러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북한여자, 정말 암살조래요?

시민 2 뭐. 간첩이다, 새터민이다. 소문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왜 왕실은 암말도 안하는 거래요? 민주주의 시대데 알아야죠 좀. 싸다. (5회)

이재하의 결혼과 그 상대인 북한 여자 김항아에게 보내는 위와 같은 국민들의 반감은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에 있어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간혹 두 사람의 사랑에 응원의 보내는 듯한 국민들의 반응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재하에 대한 지지이다. 반대로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에 불만을 느끼는 국민들은 김항아가 북한 출신이며, 특수 훈련을 받은 공작원이라는 사실에 거부감을 보인다. 대비마마인 영선이 이동급식 자원봉사를 하는 장면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반응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중년의 여성은 재하가 북한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도록 말려 달라

고 하는가 하면, 노년의 남성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폭력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6회) 이러한 현상은 김항아의 유산과 관련된 반응들에서도 이어진다. 이재하와 김항아가 술에 취해 하룻밤을 보낸 이후 김항아는 임신을 하게 된다. 둘은 전혀 이러한 상황을 모른 채 원래의 계획대로 서로 헤어진다. 북에 돌아간 후 김항아는 유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분단이라는 공적 상황은 다시 이들의 개인적 문제를 폭력적으로 다룬다. 북한의 호위사령부 부총국장은 항아에게 인터뷰를 강요하기 위해 유산에 관한 남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11회) 사실 이는 남한의 항아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연속이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가 두 사람의 애정문제를 어떻게 이용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용되는 과정은 남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클럽M에 의해 이재강이 살해당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항아는 조사위원회에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항아** 공화국에서 맨날 방송으루 하는 말이 있썬다. 남조선은 온 동네가 사창가에 거지굴이라구요. (미소로)…아니디요? 마찬가지로. 남조선이나 공화국이나, 기사 다 믿으시믄 안 됩미다. (9회)

항아의 위와 같은 발언을 통해 이 드라마에 숨겨진 국가 권력에 대한 감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남한과 북한, 두 국가는 믿을 수 없는 말들로 상대를 폄하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체제를 공고해 해왔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체제 경쟁이 재하와 항아의 개인적인 애정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문제를 각기 다른 체제에서 출생하고 자란 배경의 문제로 인지한다면, 이러한 설정은 극적 재미를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하와 항아의 문제는 이와는 확연히 다르다. 공적 영역은 이들의 사적 영역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체제 경쟁과 이

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대결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는 재하와 항아가 각자 왕과 엘리트 장교로서 각자의 나라에서 공적인 위치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과 결정은 이미 국가적인 혹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더킹 투하츠>에서 남녀의 애정문제가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들과 연결될 때, 이 드라마의 멜로드라마적 판타지는 극에 달한다. 이는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멜로드라마의 주인공들과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두 사람의 애정문제와 관련한 개인적 결정이 국가 혹은 국민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혼관계에 있다가 임신 후 유산을 한 항아의 소식을 들은 재하는 북한에 가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재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주위를 속이고 자신의 입장을 방송으로 밝힌 후 항아를 만나기 위해 북한으로 떠난다. 이 때 재하는 “한 남자가 자기 아이를 유산한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뿐”(11화)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재하의 발언은 반대로 재하의 행동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재하는 그의 방북이 개인적인 문제임을 강조하지만 그의 행동이 갖는 파장은 이미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수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하의 방북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개인적인 ‘사랑을 얻기 위해 행동을 단행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이러한 재하의 행동이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인간적인 면모’로 강조된다는 점이다.

공적인 영역에까지 자신의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여자를 위해 행동을 결의하는 남자의 모습은 굉장히 로맨틱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재하의 상황은 기존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멜로드라마의 남자주인공들과는 다르다. 재하의 결정은 한 국가와 그 국민에 관한 문제와 연결된다. 그의 잘못된 결정은 그가 통치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의

신분이 곧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이와 유사한 설정을 가진 드라마의 경우 주인공들의 사랑이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영향의 파급력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개인 혹은 가족의 차원에서 한정되어 나타난다.<sup>13)</sup> 그에 비해 <더킹 투하츠>는 이미 국가 및 국제적 문제가 서사의 중심을 이루는 만큼 왕이라는 신분은 두 인물의 신분상의 격차를 보여주는 장치 이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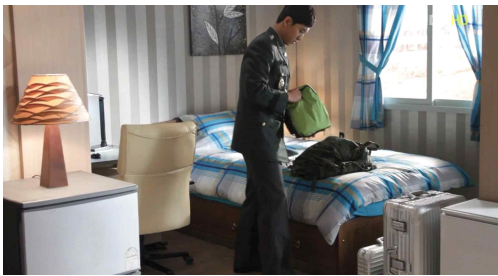
<더킹 투하츠>에서 남녀 주인공의 신분상의 격차가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먼저 두 인물을 통해 드러나는 의미로 알 수 있다. 독립된 한 국가의 왕자에서 왕으로 성장해가는 재하가 정통성을 가진 한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한다면, 항아는 이러한 의미와는 크게 대비된다. 북한을 대표하는 인물인 항아는 남한 주요 인사를 살해할 수 있는 특수부대 소속으로 등장하는데, 이러한 설정은 북한을 ‘호전적’ 이미지로 연상하는 방식과 유사하다.<sup>14)</sup> 두 사람의 관계도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연관된다. 재하와 항아가 연애와 결혼을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평등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재하가 왕으로서 존재한다면, 항아는 부인이면서도 왕의 가족인 대비마마를 보호하는 경호원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북한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동등한

13) 서론에서 언급한 <궁> 시리즈나 <마이 프린세스>에서 왕과 왕가를 중심으로 한 대체역사의 활용은, 극에 등장하는 남녀 주인공의 신분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들 작품의 경우는 두 주인공의 신분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적응 과정이 로맨스의 이야기꺼리로 등장함으로써 밝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는 <더킹 투하츠>와는 설정의 기능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14) 이는 특히 <더킹 투하츠>가 방영된 시기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역대 통일부장관들의 이념성향은 보수적이면서 국제관계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화된 실용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불변론’에 입각해서 북한의 호전적 본질을 고려해서 국가안보와 북한의 변화를 강조”(김형석, 「역대정부별 북한인식과 대북정책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06면)하였다.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호전적’인 힘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입장이 아니라 우월한 입장에서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방식과 같다.<sup>15)</sup>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남북한 군인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5회)에서도 나타난다. 남한 군인들이 전기면도기와 화장품 등 공산품을 선물하는데 비해, 북한 군인들은 떡을 선물함으로써 남북한의 사회적 여건을 대비시켜 보여준다.

남북한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대비는 다음과 같이 드라마의 화면에 드러나는 미장센<sup>16)</sup>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더킹 투하츠> 2회



<그림 2> <더킹 투하츠> 3회

위의 장면은 장교대회를 위해 남북한 군인들이 머물게 되는 남북한의 숙소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심리학적으로 영화의 색상이 분위기를 묘사한다<sup>17)</sup>고 할 때, <그림 1>과 <그림 2>는 큰 차이를 보인다. 남한의 숙소

15) 대북인식에 관한 설문에서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지원대상'으로 가장 적대적인 인식을 '적대대상'으로 파악해온 방식(이러한 설문조사 변화에 관해서는 정세영·김용호의 「대북인식의 변화와 연속성」(『한국과 국제정치』 제85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4, 120-122면)를 참조할 것) 자체가 이미 북한에 대한 남한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권별로 나타나는 북한에 대한 프레임의 유형에서도 드러난다. 김대중 정권이 생필품이나 식량 부족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북한의 지원을 강조했다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억압의 프레임을 통해 북한에 대한 불신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고조시켰다. (정권별 프레임 및 정책과 관련해서는 하승희의 「북한주민 생활에 대한 국내언론보도 프레임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46-47면)을 참조할 것)

16) 영화에서 미장센은 한 장면에서 세트, 의상, 분장, 소도구, 연기, 조명, 의상 등의 요소들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획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편, 『영화예술의 이해』, 한양대학교출판부, 2000, 76면 참조)

를 보여주는 <그림 1>은 <그림 2>에 비해 밝은 조명을 활용하고 있다. 거기다가 푸른 계열의 색상을 활용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의 가구와 소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낸다. 그에 비해 <그림 2>는 어두운 조명에 낡은 가구와 소도구를 사용하는 동시에 갈색 계열이 중심을 이루어 무겁고 음침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그림 2>에 등장하는 북한 숙소는 남한 숙소에 비해 낙후된 인상을 준다. 거기다가 화면에 보이는 선전문구와 인물 사진이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를 함께 보여주는 듯하다.

위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녀주인공을 중심으로 남과 북을 고정된 이미지로 투사하면서도, 두 사람의 역경에서 왕이 자신의 힘을 개인적 문제에 활용하는 것처럼 로맨틱하게 그려내는 방식은 문제적이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고정된 이미지를 통해 북한을 대상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왕이라는 신분과 그가 가진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기 보다는 그를 한 사람의 개인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즉, 남한이라는 한 국가의 관점에서 왕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공적 의미와 영향은 지워지고 개인적인 측면을 통해 멜로드라마의 남성 주인공의 매력을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쉽게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며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왕을 내세운 대체역사물은 멜로드라마의 구성을 취함으로써 남녀의 사랑을 통해 보다 시청자들에게 쉽게 다가가려는 전략을 취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두 주인공의 관계에서만 엿보이는 것은 아니다. 왕족들 또한 그 공적인 존재감이 멜로드라마를 통해 인간적인 면모가 강조되어 그려진다.

17) Louis Giannetti, 김학용 옮김, 『영화 형식과 이해』, 한두실, 1991, 43면 참조.

시경 우리 때문에 놀고먹으면서, 우리 덕 보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비웃죠?

재신 노래... 불러줄까요?

시경 (한숨)

재신 아니야. 지금 놀리는 거 아니에요 빈정도 아니구. 진심으로 미안한데,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 그러면 안될 거 같아서. (7회)

재신 보는 거랑 밥 먹는 거랑은 다르지. 우리 새언니 음식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죠? 왕비가 직접 해준 밥을 얻어먹으면서 왕이랑 공주랑 겸상하는 거, 아무 때나 이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일생일대의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잡아요 빨리, 덱석.

시경 몇 시까지 계실 겁니까?

재신 시간 되는구나? 나도 눈치가 있어서 밥만 먹고 빠질 거니까. 한 일곱 시?

시경 그때 연락하세요. 모시러 가겠습니다. (탁 끊고)

재신 아, 잠깐. 뭐야 다들 이렇게 착한 척이야. (7회)

위의 인용에서 보듯, 공주인 재신의 경우도 재하와 마찬가지로 멜로드라마의 구성 속에서 애정 문제를 통해 인물이 형상화된다. 드라마 초반의 재신은 공주와는 어울리지 않게 가수로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이 때문에 시경과 충돌하기도 한다.(6회) 이러한 모습은 왕족들이 가질 수 있는 공식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본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것은 마치 재하와 마찬가지로 재신의 자유로운 성격이 그녀에게 주어진 신분의 무게와 대비되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자유분방함과 신분적 운명의 충돌이 공적인 삶을 사는 이의 내적 갈등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성격과 운명의 대비는 인용에서 보듯, 시경과 남녀 관계로 부딪치는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한다. 재하의 공적인 문제가 개인적인 연애의 문제

로 치환되었듯이, 재신의 경우도 그녀가 불구가 되고 시경이 그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점점 공적인 문제는 애정 문제로 수렴하게 된다.

왕과 왕족을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그려내는 방식은, 시청자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들을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멜로드라마의 구성을 통해 그려지는 절대 권력자들은, 시청자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시청자들은 왕으로 상징되는 절대적 권력과 그것이 가지는 부정적 측면을 직시하기는 어려워지는 반면,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백마 탄 왕자’의 주인공과 같은 방식으로 왕과 그의 절대 권력을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더킹 투하츠>가 판타지에 근거한 대체역사에 기반하고는 있지만, ‘왕과 같은 존재는 외계인이나 도깨비와 같은 ‘백마 탄 왕자’의 변형과 사회적 함의가 다르다. 판타지에 기반한 멜로드라마의 남자주인공이 어떠한 능력이나 위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의 사회적 관계망은 여자 주인공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왕이라는 존재는 그가 가지는 권력 자체가 대사회적인 관계에서 얻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공적이고 대사회적일 수밖에 없는 인물의 공적 문제를 통해 사적인 애정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문제적이다. 특히 <더킹 투하츠>의 경우 유사한 형태의 텔레비전드라마와 비교할 때, 그 공적 문제가 자본권력과의 투쟁이나 분단 현실과 같은 현실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러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멜로드라마의 구성은, 이 드라마가 국민이나 국가와 같은 거대담론의 문제를 대중적 코드에 맞게 풀어가면서 우리 사회 일반의 무의식에 드리워진 국가의 이미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 3. '왕실' 판타지와 '분단' 리얼리티의 모순적 절합

<더킹 투하츠>가 우리 사회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할 때,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기표는 '왕실'이라는 '판타지'와 '분단'이라는 '리얼리티'의 기계적인 결합이라고 하겠다. 이 드라마의 판타지적 기반은 왕의 존재와 입헌군주제를 전제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타지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특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식민지가 되어버린 과거 조선의 역사는 이러한 판타지가 얼마나 실제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킹 투하츠>와 유사한 방식으로 왕실을 그리는 드라마들은, 모두 왕실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섰고 이에 국민들이 왕실을 인정해준다는 설정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이와 크게 다르다.

조선이 식민지가 되면서 고종과 순종이 천황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대한제국의 황실은 억압을 받았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제는 대한제국 황실에 대한 예우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는 당시 다른 식민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sup>18)</sup> 또한 구황실(이왕가)의 재정 문제를 살펴보면 그 재정은 왕공가(王公家)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는데, 이를 조선총독부가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일제가 이왕가를 내세워 식민지 지배에 협력하는 세력을 보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이렇게 본다면, 역사적으로 대한제국 황실은 일제에 의해 탄압을 받거나, 국가의 독립을 위해 애를 쓴 존재는 아니다. 오히려 조선의 왕가는 일제강점기 전 기간 동안 과거의 지위와 예우를 유지했다. 더욱이 역사적인 연구들을 통해 본다면, 이

18) 이왕무, 「대한제국 황실의 분해와 왕공족의 탄생」, 『한국사학보』 제64호, 고려사학회, 2016, 26면 참조

19) 김명수, 「1915~1921년도 구황실(李王家) 재정의 구성과 그 성격에 관한 고찰」, 『장서각』 3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37면 참조

왕가는 다른 식민지 왕족들과는 다르게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그 세력을 보호받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드라마가 대체역사물로서 ‘판타지’라는 조건에 부합한다. <더킹 투하츠>에서는 ‘왕살’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다고 전제함으로써 실제의 역사적 전제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러니 이 드라마의 설정은 판타지로서,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판타지의 조건은 조선이라는 전근대적인 국가를 오늘날의 민주공화국과 연결시키는 방식인 동시에 전근대적인 절대 권력의 속성을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가라타니 고진의 말처럼, ‘자본-네이션-스테이트’의 관계에서 네이션이 자본에 의해 해체된 공동체의 상상적 회복으로서 작동한다<sup>20)</sup>고 한다면, 식민지를 통해 상처받은 민족 역사에 대한 통탄은 해방 이후 ‘네이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민국가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드라마를 통해서 전혀 다른 왕권 국가와 민주공화국의 차이는 상쇄된 채, 공동체에 대한 상상을 통해 강력한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시대의 국가 체제가 연결되는 것이다.

강력한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더킹 투하츠>의 ‘왕살’ 판타지를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난다. 드라마의 시작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통일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왕이자 형인 재강이 재하를 속여서까지 남북단일팀으로 세계장교대회(WOC)에 출전시키고자 하는 배경도 강한 국가에 대한 욕망에서 출발한다. 통일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외세와 대등하게 맞서겠다는 의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드라마가 판타지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잠재된 욕망을 구현해 내고 있다면, 판타지 속에 잠재된 강력한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현실적 인식과 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드라마의 표현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드라마 속 한국이 교류하거나 대결

20)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b, 2009, 22면 참조.

하는 국가들의 성격이다.

다른 국가들과의 대결은 주로 세계장교대회라는 대회를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대회가 국가 간의 정정당당한 대결로 보이지는 않는다. 남북단일팀이 북한에서 훈련을 하던 와중에 러닝머신에 폭탄이 설치되는 일이 발생한다.(3회) 이 상황에서 남북한단일팀의 대회 참가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미국과 중국이다. UN군이라는 이름하에 이들은 북한에 위치한 훈련시설을 점검하며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만, 왕인 재강이나 수상은 별 대응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에 강하게 대응하는 인물은 재하이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장교대회는 왕이 될 재하의 성장 과정이며, 그는 미국이나 중국과 맞설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강한 왕의 상징처럼 보이게 된다.

세계장교대회가 일종의 대회로 그려지며, 참여한 장교들이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대결로만 읽어내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드라마 속 사건의 중심에 언제나 미국이나 중국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드라마 속에서 오늘날 한국이 꿈꾸는 강대국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왕실이 건재한 국가들이 한국과 비교되는 상황은, 강대국의 이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1회에서 재하와 대화하는 재강은 “영국처럼 왕실의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하늘의 아들이다 떠받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먹고사는 주제에”(1회)라고 하면서 재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왕이 존재하는 비교 가능한 국가는 근대 이전부터 존재한 왕실이 건재하고 이를 현대적인 방식에서 입헌군주제로 정착시킨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다.<sup>21)</sup> 이들은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를 운영하였거나 독립을 유

21) 이러한 경향은 <궁>이나 <마이 프린세스>와 같이 입헌군주제를 전제한 유사한 드라마에서도 나타난다. <궁>의 경우 영국 왕실에서 한국의 왕실 행사에 참여하는가 하면, 국가 행사로 태국을 방문하기도 한다.(9회) <마이 프린세스>의 경우도 박동재

지함으로써 왕실의 전통을 이어오고 입헌군주제를 정착시킨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왕실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나라로 미국과 중국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역사적인 측면이나 체제 차원에서 근대 이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존재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단절된 국가들이다. 즉, 오늘날의 국가로서의 모습은 근대 이후에 성립되었기에 전통이라는 역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물론 근대 이후 강대국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의 강력함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왕실의 전통을 가진 국가들과는 다르다. 따라서 <더킹 투하츠>에서 드러나는 강대국의 지향점은 단순히 경제나 군사적인 힘에 기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전통’을 지닌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더킹 투하츠>가 왕실을 중심으로 한 근대 이전부터 지속된 전통을 지닌 강한 국민국가의 성립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드라마 속에서 국가 내외적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함께 다루는지가 중요해진다. 다른 말로 이는 강력한 국민국가 성립에 어떤 장애물들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분단’이라는 리얼리티가 삽입된다. <더킹 투하츠>에서 가장 문제적인 상황의 발생은 남북한의 분단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를 중심으로 클럽M이 영향을 미치고 미국 및 중국으로 대변되는 국제정세가 불안하게 조성된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히 국가들 간의 힘겨루기나 자국의 이국만을 위한 우승열패의 논리만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더 핵심적인 대립은 왕인 재하가 가진 정치권력과 클럽M의 봉구가 가진 자본권력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라타니 고진의 ‘자본-네이션-스테이트’의 관계로 볼 때, 드라마 속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관계나 대립양상은 비현실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판타지’로 이해되기도 한다.

---

회장이 지은 황실 리조트를 영국과 비교하는가 하면(4회), 영국과 문화재 반환을 문제를 논의하기도 한다.(16회)

세계사에서 국민국가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지점 중의 하나는 부르주아 혁명이다. 이들 부르주아는 경제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권력인 왕권과 대결하여 자유를 획득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모든 민중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역사적 갈등은 이들이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중적인 상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가라타니 고진의 이론에서 보듯, 자본주의에 근간을 둔 오늘날 국가나 네이션은 이데올로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와 같은 차원에 있으면서 셋은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있다.<sup>22)</sup> 따라서 국민국가의 성립에 있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관계성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킹 투하츠>에서 그려지는 정치권력인 왕권과 자본권력인 자본의 관계성은 현실을 벗어난 ‘판타지’에 가깝다. 현실 세계에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은 서로의 안위를 위해 협력 관계에 놓여있지만, <더킹 투하츠>에서는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 서로 대결하는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다.

**봉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나몰라라 그냥 떠나셨구요. 어머니 거의 절 버리셨어요. 술집하셨거든요. 먹고살아야 되니까. 억지루라도 왕립학교 우겨 넣으면 혼자 잘 크겠거니 하셨나봐요. 진짠 그게 아닌데. 정(情)인데. 봉사활동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가정환경 안좋은 애들 얼마나 비참한지. 어릴땐 나두 정말 순둥이였는데, 어찌다 이렇게 됐는지 참. 저도 이젠 피곤해서 다 놓구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재하한테 말 좀 잘 해주세요. 다 놓고 왕위에서 내려오라구. (16회)

<더킹 투하츠>에서 남북한의 평화 그리고 재하와 향아의 사랑에 있어 최대의 적은 다국적 군산복합체 클럽M이며, 클럽M의 수장은 존 마이어

22) 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13-18면 참조.

라는 영어 이름을 쓰는 김봉구라는 한국인이다. 군산복합체라는 클럽M의 특성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북의 평화를 반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인용에서 보듯 실제적으로 그가 재하 및 향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개인적인 원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속성에 따라 정치권력을 이용하려는 군산복합체의 부정적인 속성은 휘발되며, 세계 질서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자본과 국가권력의 상관성은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비취게 된다. 그러나 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은 봉구의 개인적인 문제 또한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재하가 어린 시절 그가 서있는 창문 맞은편에 봉구가 ‘I am King’이라고 쓴 모습이 그려지고(1회), 이 일이 이후에도 몇 번 상기되기는 한다. 이를 봉구의 불우한 가정 문제와 연결하여 그가 왕실과 맞서고자 하는 이유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왕권을 거부한다고 보기에는 스스로가 이미 다른 의미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냈기에, 그의 권력에 대한 저항을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봉구는 정치권력과 맞서나 자본의 논리만을 쫓는 자본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신 이상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더킹 투하츠>는 세계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의 상관성을 그려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도, 그 연결고리는 한 사람의 정신이상자로 뒹뒹 두 권력의 상관성과 국제 정세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고 만다.<sup>23)</sup>

<더킹 투하츠>에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대립과 결탁이 비현실적으로 그려짐에도 불구하고, 김봉구라는 한 사람의 절대악으로부터 극중

23)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마이 프린세스>에서도 왕권과 자본권력의 상관성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그려진다. 대한그룹 박동재 회장은 독립자금을 빼돌려 그룹을 세웠다는 죄책감에 모든 재산을 왕실에 기부함으로써 왕실을 재건하겠다고 한다. 그의 아들은 이를 거부하고 사고로 이설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쫓겨난다. 또한 손자 박해영은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뜻을 반대하지만, 이설을 사랑하고 나서는 할아버지의 뜻을 따른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관계의 설정은 왕권이라는 절대 권력과 자본주의라는 자본권력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더킹 투하츠>와 유사하게 문제적이다.

사건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북분단이라는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단 상황 하에서 남북의 체제는 서로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분단이라는 상황에 역설적으로 힘의 균형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분단 상황에 변화를 가하려는 이들은 힘의 균형 상태를 원하는 주변 강대국들이나 군산복합체가 개입하기 좋은 빌미를 제공해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드라마 속에서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마주한 분단이라는 리얼리티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가 왕이라는 한 사람의 절대 권력자로 설정되면서 현실성을 잃고 만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왕실’ 판타지와 ‘분단 리얼리티’의 절합이 일어난다.

드라마는 이미 강력한 국가상으로 국민국가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드라마에서 통일은 분단이라는 우리의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퍼즐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통일은 강력한 국민국가를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될 뿐이다. 특히 그것이 국민들의 이해와 여론을 통해 수렴된 것이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계획될 때는 더욱 그렇다. 그 이유가 어떻다고 해도<sup>24)</sup> 권력에 의해 통일이 다루어지는 순간, ‘왕실’이라는 판타지는 ‘분단이라는 리얼리티’마저 강력한 국가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두게 된다. 드라마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가난하고 폭력적인 국가로 그려내는 방식은 여전히 통일 문제에서 상대인 북한을 타자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재하와 향아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나타난다. 드라마의 마지막에 아들의 ‘오마니’라는 말에 해명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설정(20회)은, 북한에 대한 여전히 선입견을 보여준다. 이처럼 드라마에서 드러난 통일 혹은 남북의 평화는 다른 목적을 위한 보조 수단이 될 뿐이기 때문에, ‘왕실’ 판타지를 통한 분단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알 수 있다.

24) 드라마에서는 재강이 독일 통일을 보고 남북통일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 4. 텔레비전드라마의 전근대적 판타지 - 결론을 대신하여

이제까지 <더킹 투하츠>를 통해 대체역사물에서 드러나는 국민국가에 대한 욕망을 읽어보았다. 텔레비전드라마 <더킹 투하츠>는 대체역사라는 대중적인 기법을 통해 우리의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체역사에서 판타지가 현실 아닌 현재를 가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때, 대체역사는 역사의 자의성(arbitrariness)을 전경화하면서 현실을 전복시키는 장르이다.<sup>25)</sup>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현실과 판타지의 조합으로써 판타지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퇴색되었다. 이는 현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복하는 방식으로 판타지가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국권을 상실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 강력한 국가에 대한 열망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근대의 발전이 국민국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때, 식민지를 거친 우리 민족에서 있어 영웅적인 지도자와 강한 국가에 열망은 언제나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킹 투하츠>를 통해 국민국가의 문제를 엄중하게 독해하는 이유는, 드라마가 전제로 한 대체역사라는 판타지의 성격 때문이다. 이 드라마가 내세운 대체역사의 판타지는 ‘왕실’의 지속 가능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판타지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왕가의 적극적인 독립운동과 관련시킨다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근대전환기 조선은 열강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여러 열강들 사이에서 일본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독립을 위해 활동하였다고 생각하는 방식은 이미 역사에 대한 대체적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 질문은 바로 만약 근대적 전환을 온전한 국민국가의 모습으로 이룰 수 있었으면 지금 어땠

25) Karen Hellekson, *The Alternate History: Refiguring Historical Time*, Ohio: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2001, p. 111 참조

을까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타지는 근본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전제들을 훼손한다. 그 중요한 전제가 바로 신분제 및 그 세습에 대한 부정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라타니 고진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네이션-스테이트’는 하나의 체제를 이룬다. 이 때 네이션은 역사에 따라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네이션을 민족 혹은 국민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의 차이를 차치하더라도, 민족 혹은 국민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는지 혹은 능동적인 주체로 이해하는지에 따라 자본과 국가가 이루는 체제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왕권이 존재하던 시대에 네이션이 그저 수동적인 대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면, 왕권이 사라진 오늘날 네이션은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웅적 지도자와 강한 국가를 앞세운 왕권국가와 민주공화국의 기계적 결합은 한계를 내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민족 혹은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위상을 무화시키면서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열망을 통해 국가와 권력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국가라는 정치권력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봉구를 통해 드러나는 자본권력은 세계화를 통해 비대해진 자본주의의 권력 속성을 현실적으로 그려내지 못한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권력의 속성은 봉구라는 개인의 욕망으로 치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또한 자본주의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다루어야 할 부분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다. 물론 <더킹 투하츠>가 판타지를 통해 국민국가라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식은 다른 의미를 생산하기도 한다. 남남북녀의 사랑과 결혼을 통해 남북의 평화를 이끌어냄으로써 분단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판타지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판타지가 현실을 전복시킴으로써 현실의 다른 측면을 마주할 수 있게 해준다

고 할 때,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분단 문제에 대한 전복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드라마는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강력한 국가에 필요한 부수적인 조건으로 두고 만든다. 나아가 드라마를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강력하고 부강한 국가에 대한 욕망은 전근대적인 국가에 기반한 권력의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왕권국가의 문제를 영웅과 강한 국가의 이미지로 치환시키는 순간, 대중들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그 결과로서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해하게 될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더킹 투하츠>는 입헌군주제라는 대체역사를 남녀의 사랑에 어울리는 멜로드라마로 활용함으로써 전근대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근대성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무화시키는 동시에 신분제가 존재하는 입헌군주제라는 대체역사에 이미 전제된 것이며, 고정된 이미지로 북한을 상대화하고 자본권력의 속성에 눈감는다는 사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체역사라는 판타지를 활용한 이러한 드라마는 텔레비전드라마를 둘러싼 그 어떤 주체의 욕망에 의해서라도 시청자를 왜곡된 현실 인식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이 때문에 텔레비전드라마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시대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홍진아 극본, 이재규 연출, <더킹 투하츠>, MBC, 총20회, 2012.3.21.~2012.5.24.  
이재수도영명 극본, 황인뢰·김수영 연출, <궁S>, MBC, 총20회, 2007.1.10.~2007.3.15.  
인은아 극본, 황인뢰 연출, <궁>, MBC, 총24회, 2006.1.11.~2006.3.30.

### <스포츠경향>

### 2. 단행본

-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 문예출판사, 2010.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편, 『영화예술의 이해』, 한양대학교출판부, 2000.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b, 2009.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벤 싱어, 이위정 옮김,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1.  
츠베탕 토도로프, 최애영 옮김, 『환상서설』, 일월서각, 2013.  
Giannetti, L., 김학용 옮김, 『영화 형식과 이해』, 한두실, 1991.  
Hellekson, K., *The Alternate History: Refiguring Historical Time*, Ohio: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2001.

### 3. 논문 및 기타

- 김명수, 「1915~1921년도 구황실(李王家) 재정의 구성과 그 성격에 관한 고찰」, 『장서각』 제3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김형석, 「역대정부별 북한인식과 대북정책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류철균·서성은, 「영상 서사에 나타난 대체역사 주제 연구」, 『어문학』 99집, 한국어문학회, 2008.  
박노현, 「텔레비전 드라마와 환상(성)」, 『한국문학연구』 4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4.  
\_\_\_\_\_,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환상성 - 1990년대 이후의 미니시리즈를 중심

- 으로], 『한국학연구』 제35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 박명진, 「기계/기술적 대상에 대한 공포와 판타지의 정치적 무의식」, 『한국극예술연구』 제52집, 한국극예술학회, 2016.
- \_\_\_\_\_, 「타임머신/시간여행 모티브 드라마에 나타난 자기계발 이데올로기」, 『한국극예술연구』 제47집, 한국극예술학회, 2015.
- \_\_\_\_\_, 「텔레비전 드라마 <나인>에 나타난 시간 여행의 의미 연구」, 『어문론집』 제59집, 중앙어문학회, 2014.
- 백소연, 「OCN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환상의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5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7.
- 이 숙, 「한국 대체역사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왕무, 「대한제국 황실의 분해와 왕공족의 탄생」, 『한국사학보』 제64호, 고려사학회, 2016.
- 윤석진, 「판타지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에 구현된 '불안/혐오/경창'의 타자」, 『한국언어문화』 제6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 정세영·김용호, 「대북인식의 변화와 연속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85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4.
- 최연식,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7.
- 하승희, 「북한주민 생활에 대한 국내언론보도 프레임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Abstract

The Pre-modern “Fantasy” of the National Drama  
of the TV Drama – Focusing on *The King 2 Hearts*

Lee Seunghyun

This paper aims to deal with the problem of reality and illusion hidden in the work by reading the TV drama *The King 2 Hearts* from the viewpoint of the alternative history. Alternative history is a genre that overthrows reality by making history self-conscious. Therefore, if we deal with the reality and fantasy of *The King 2 Hearts* through alternative history, we can understand one aspect of reality perception through TV drama.

The TV drama *The King 2 Hearts* is somewhat problematic as a popular theater that can grasp reality recognition. The first is to use alternative history to construct a new melodrama. It is at the center of the narrative of the melodrama of the royal family of South Korea and the female military officer of the North with regard to the setting of the participatio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the Joseon royal family continuously. But, their love affair is not merely an individual problem, but rather a distinction from other types of melodrama in that it is connected to the problems of the nation and the people. These narratives consist of a contradiction between the 'royal' fantasy and 'division' reality. If the royal family of South Korea is a result of fantasy as an alternative history, the problem of division of the two Koreas is a real reality. However, this real problem can not be overturned in the fact that reality is distorted due to the unrealistic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ower and economic power.

The TV drama *The King 2 Hearts* deals with our reality through a rather popular

technique called alternative history. But the combination of reality and fantasy has faded the merits of fantasy. This is because the illusion has not been utilized in the way of overturning in the positive direction of reality. Thus, *The King 2 Hearts* takes a conservative stance that conceals reality through fantasy and reveals a desire for a strong nation.

Key Words : Alternative history, Fantasy, Melodrama, *The King 2 Hearts*, TV drama

접수일: 2018년 2월 7일

심사기간: 2018년 2월 10일 - 3월 11일

게재결정: 2018년 3월 12일